

# 몸집 키운 황동하 “선발경쟁 승자 되겠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5선발'에 쏠리고 있다.

우완 황동하도 눈길을 끄는 선발 후보 중 한 명이다.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승부가 감점인 황동하는 지난 시즌 줄부상 마운드에서 선발 빈자리를 채워 주면서 빛나는 우승 조연이 됐다.

올 시즌 더 치열해진 경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황동하는 미국 어반 캠프에서부터 평온하게 시즌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여유로운 표정으로 캠프를 보내고 있는 황동하, 이유 있는 여유다.

황동하는 새 시즌을 앞두고 힘을 기르는 데 공을 들였다. 그 노력은 눈에 보인다. 황동하는 한층 탄탄해진 몸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체력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더 많이 했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트레이닝 위주로 많이 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몸 좋아진 것 같다고, 준비 잘해 온 것 같다고 하더라.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뿌듯하다"며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여유 있고 자신감도 더 높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든 황동하는 준비한 대로 싸울 준비를 끝냈다. 황동하는 지난 23일 불펜에서 45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황동하는 "직구에 힘이 좀 생긴 것 같다. 계획했던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트레이닝 코치님이랑 비시즌에 운동하면서 계획했던 단계들이 있는데, 시합 전 단계에서 힘을 최고로 쓸 수 있는 단계를 만들 생각이었다"며 "나는 경쟁을 해야 하니까 연습 게임 때부터 전력 피칭을 할 계획으로 왔는데 연습 게임 때 전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된 것 같다"고 캠프 중간 평가를 했다.

준비를 잘했고, 계획한 대로 캠프가 흘러가고 있

긴 시즌 대비 체력 키우기 집중  
'하던 대로' 페이스 유지하며  
한국시리즈 분위기 또 맞볼 것

는 만큼 황동하의 표정은 밝다. 올 시즌 황동하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다. 올해부터 KBO에 피치클락이 도입된다. 빠른 템포로 자신의 경쟁력을 만든 황동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다.

황동하는 "딱히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준비해야 될 것보다는 하나 정도 덜하다는 그런 느낌이다"고 말했다.

우승 시즌을 보낸 기억도 새 시즌을 준비하는 황동하에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황동하는 프로 4년 차에 우승이라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고, 연봉이 3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역대연봉자가 된 황동하는 "어딜 가도 계속 축하받을 일밖에 없는 것 같다. 첫 우승을 KIA 와서, 한국시리즈에서 하나까 더 좋은 것 같다. 학교 다닐 때도 못 했는데 우승 하나까 좋다"며 "비시즌에도 작년에 좋았던 경기 많이 찾아보고, 시합 생각만 했다. 우승 당시 분위기, 한국시리즈 분위기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중요한 상황에서 던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2025시즌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황동하는 '하던 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선발 경쟁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다.

황동하는 "연습경기 하는 걸 보는데 시합을 안 나갔는데도 긴장도 많이 되고 빨리 시합도 하고 싶었다"며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작년에는 보여주려고 했던 게 너무 커서 초반에 진짜 안 좋았다.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고 더 잘할 것 같다. 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아구잡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글=사진=wool@



KIA 타이거즈의 황동하가 지난 23일 일본 오키나와 이사카와 구장에서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 광주FC '오후성의 재발견'

아침 두 골 이어 전북전서도 골  
2-2 비기며 시즌 첫 승은 불발  
3월 1일 안방서 FC안양 상대

광주FC가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만들지 못했지만 '오후성의 재발견'이 있었다.

광주FC는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15일 수원FC와의 개막전에서 0-0에 이은 두 경기 연속 무승부다.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오후성이 지난 18일 부리람 유니타드(태국)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엘리트리그 최종전에 이어 다시 한번 골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경기 선제골은 광주의 차지였다.

전반 13분 아사시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뺏은 뒤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전북 골대를 갈랐다. 광주의 2025시즌 1호골이다.

하지만 전반 20분 광주가 동점골을 허용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전북 송민규가 울린 크로스를 골파노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다.

후반 17분 오후성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렸다. 오후성은 지난 부리람과의 ACLE 홈경기에서 추격골에 이어 동점골을 연달아 터트리면서 0-2를 2-2 무승부로 만든 주역이었다.

변준수가 오른쪽에서 울린 공이 상대 수비 넘어 문전에 있던 오후성에게 향했다. 가슴으로 공을 잡은 오후성은 이내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가 3분 뒤 골파노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하면서 결승골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오후성은 몰론 감각으로 광주팬들을 웃게 했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 속에 변화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광주 입장에서 반가운 활약이다. 지난 시즌 9경기 출장에 그쳤던 오후성은 ACLE 활약을 바탕으로 리그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새 전력으로 급부상했다.

이른 개막 속 ACLE 두 경기까지 소화하느라 분주했던 광주는 숨을 고른 뒤 3월 1일 안방에서 '승격팀' FC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승을 겨냥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오후성이 지난 23일 전북현대와의 K리그1 2025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17분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조태원 전 광주시검도회 부회장, 대한검도회장 취임

제29대 대한검도회 회장으로 당선된 조태원(사진) 전 광주시검도회 부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조태원 신임 회장은 최근 대전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대한검도회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검도계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침체를 겪고 있다. 자성과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검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아시아검도연맹 설립 추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현재 아리예스코리아 대표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검도회 부회장,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대학검도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검도계에 몸담아왔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검도의 미래는 변화에 달려 있다"며 "젊은 세대와의 교류 강화와 세대 간



융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도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4년간의 임기 동안 국내외의 검도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1월 7일 대한검도회 최초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113표(58.85%)를 획득하며 79표(41.15%)를 얻은 이안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진기 기자 jingg@kwangju.co.kr

## '만 36세' 이승훈 빙속 월드컵 금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던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36·앨범시아·사진)이 월드컵에서 모처럼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승훈은 24일 폴란드 토마슈프라조비에츠키의 로도와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 48초 0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그는 스피드포인트 60점을 얻어 네덜란드의 바르트 홀버르프(7분 48초 50·스프린트 포인트 40점),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조반니니(7분 48초 56·스프린트 포인트 21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훈이 올 시즌 월드컵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월드컵 금메달은 2017년 1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7-2018시즌 4차 대회 매스스타트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날 이승훈은 레이스 초반엔 후미에서 조용히 체력을 비축했다.

그는 결승선을 4바퀴 남길 때까지 16위에 머물



렀다. 선수들 사이에서 숨겨지던 이승훈은 결승선을 두 바퀴 남기고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이승훈은 순식간에 3위로 올라섰다. 사사키 쇼무(일본), 리피오 뱁거(스위스)의 뒤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다.

그는 마지막 바퀴 첫 번째 곡선주로에서 바깥쪽으로 나와 두 선수를 제치며 선두로 올라섰다.

그리고 마지막 곡선주에서 거리를 더 벌렸다. 이승훈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무척을 불끈 쥐었다. 이날 이승훈과 선두 경쟁을 펼쳤던 일본의 사사키는 2006년 2월생으로 이승훈보다 17살이 어리다. /연합뉴스